

## 2000년 이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

최 호 정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배재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 The Latin American Culture in Fashion Designs in 2000's

Ho-Jeong Choi

Ph. D., Dept. of Clothing &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Dept. of Home Economics, Pai Chai University

(2007. 2. 12 투고)

#### ABSTRACT

For the study on the Latin American culture reflected in fashion designs since 2000, the applications of Latin American culture shown in the four major collections from 2000 S/S to 2005 F/W (110 pieces) and some African designers' collections (157 pieces) have been analyzed and compared in three categories - forms, patterns and accessories.

First, in the formal application of traditional clothes, the traditional elements of Indio culture are utilized in both the four major collections (76.8%) and the Latin American designers' collection (77.1%). Quechquemitl, the traditional Indio clothes are utilized in various forms in the four major collections, while the Latin American designers adopt various forms of traditional clothes, such as quechquemitl, camisa and pollera.

Second, in the textile design, the patterns from Indio's traditional textile design are utilized in both the four major collections (68.7%) and the Latin American designers's collections (5.6%). The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the Latin American designers and the western designers is that the former like to mix the simple and primitive Indio culture with the colorful Iberian culture, and to utilize various patterns of feather, which is an important symbol in the traditional culture, expressing tradition in the modern touch. On the other hand, the western designers change the primitive and handcraft feel of Indio patterns into colorful ones, or mix the colorful Spanish-style flower patterns with primitive and passionate feel.

Third, simple and handcraft feel of Indio accessories are utilized in modern fashion in both the four major collections and the Latin American designers' collections. The most remarkab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 of designers' collections is that various feather patterns are used in Latin American designers' collection, while the accessories reminding of relics of Maya and Inca are widely used in the four major collections.

Key words: Latin American culture(라틴 아메리카 문화), Ethnic fashion(에스닉 패션), Indio culture(인디오 문화), Iberian culture(이베리아 문화)

---

Ho-Jeong Choi, e-mail: bhoso@hanmail.net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한(韓)브랜드화 사업)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I. 서론

사회는 세계화 되었고 그 영향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도날드, 피자헛 그리고 리바이스 상점들이 모든 도시마다 생겨나고 있고, 최신의 패션은 TV와 잡지, 그리고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세계화 시대 지역 문화의 변화는 이러한 세계 문화의 획일화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다른 지역의 문화에 대한 관심에 고조되고 있고, 각 지역에서는 자신의 문화를 보존하고 이를 세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논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패션에 있어서 이러한 지역의 문화는 인터넷을 통한 웹사이트나 자국 또는 각 대륙에서 벌어지는 패션 주간을 통해 스스로를 국제적으로 프로모션하고 있으며, 다양한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특히 식생활에서 각 민족의 고유한 음식을 판매하는 외식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멕시코 푸드 열풍을 일으켰다. 타코(taco), 나초(Nacho) 등 멕시코 푸드는 패스트푸드화되면서, 대형 체인점들에 의해 확산되었고,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대중화되었으며, 가장 트렌디한 음식점으로 각광받고 있다. 음악이나 춤 등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리키 마틴(Ricky Martin)과 샤키라(Shakira) 등 라틴 아메리카 태생의 팝스타는 라틴 음악 특유의 신나고 열정적인 요소와 팝적인 요소를 잘 조화시켜 라틴 음악을 전 세계에 대중화시켰고, 탱고, 살사, 룸바, 삼바, 콩가 등 라틴 음악은 리듬의 다양성과 그와 접목되는 다양한 댄스로 전 세계인들이 즐기고 있다. 의생활에서도 판초형 상의인 멕시코의 케스케미틀은 편안함과 자유로운 의상의 특성으로 세계화되었으며, 브라질 리우 카니발의 화려한 축제의상에서 영감을 얻은 티어드 스커트는 이미 세계인의 일상복에 자연스럽게 도입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는 오랜 식민지의 경험, 독립 이후에도 미국의 인접국으로 서구의 신식민지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라틴 아메리카는

마야, 아즈텍, 잉카 등 풍부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외채에 시달리는 후진국으로 인식되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는 미국의 지식인들에 의해 제안되고 확산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독립 이후 라틴 아메리카 사상가들에 의한 서구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라틴 아메리카속의 라틴 아메리카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창조적인 영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sup>1)</sup> 이러한 경향은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특히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인디오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 사례를 통해 미국의 지식인들에 의해 구체화되어버린 라틴 아메리카 문화와는 차별화된 진정한 의미의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6년 Christina Pineda와 Ricardo Covalin에 의해 설립된 멕시코의 'Pineda Covalin'은 고대 프리콜롬비아 및 멕시코 전통을 기반으로한 컬러 패턴을 주로 활용하여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으며, 스페인 점령 전의 멕시코 문화에서 영감을 발견하고 전통적인 멕시코의 의식과 관습, 그리고 신화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Pineda Covalin은 주로 박물관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마야와 아즈텍 문화의 디자인과 심볼을 이용한 실크 타이, 가방, 쿠션등은 해외의 박물관과 전문 부띠끄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작품은 멕시코 패션 주간 중에 선보인 것은 물론 성공적인 사업체로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리오데자니이로 부근의 호싱야 여성들의 협력체인 'Coopa Roca'는 전통적인 브라질 수공예품을 보존하고 전파하고 있으며, 브라질 디자이너들뿐 아니라 C&A의 남미 지점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2)</sup>

라틴 아메리카 복식과 문화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경우 콰미선(1993)의 스페인과 멕시코 지역의 민속 복식을 비교한 선행 연구가 있으나,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가 세계 문화에 미친 영향과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중요도에 비해 현대패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요소는 4대 컬렉션의 지속적인 유행경향으로, 멕시코 패션 위크, 모다 상 파올로 등

지역 패션 주간을 통해 지역 문화에 뿌리를 두었으나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라틴 아메리카 문화요소를 활용하여 나타나는 복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패션의 디자인 영감이 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와 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2000년 이후 4대 컬렉션과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로서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라틴 아메리카의 패션디자인을 통해 문화적 진원지로서 문화의 발산자로서 뿐 아니라 서구적인 해석과는 다른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문화의 원천을 활용하면서도 현대화를 적극 수용하여 나타나는 복식의 경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통 복식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2000년 이후 4대 컬렉션과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의 활용 사례를 형태, 문양, 장신구의 영역으로 나누어 현대패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에 관련한 국내외 서적과 선행 연구 논문을 통한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위해 2000 S/S에서 2005년 F/W 세계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 요소를 활용한 사례 110점, firstview.com의 디자이너 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색된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의 같은 시기 컬렉션중 라틴 아메리카 문화 요소를 활용한 디자인 157점을 비교·분석하였다.

## II. 라틴 아메리카 전통 복식

### 1.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성

라틴 아메리카는 문화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두

가지 층이 존재한다. 첫째는 중앙 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에서 페루의 잉카 문명에 이르는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인디오 문화이다. 인디오 문화 우세지역은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등으로 마야문명, 아즈텍 문명, 잉카문명을 낳은 멕시코 고원과 안데스 산지 지역은 혼혈이 심하여 메스티소(Mestizo)<sup>3)</sup>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자주 하위 인간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서도 라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은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고 인디언 유물에 대한 자부심을 지고 현재까지도 전통 문화를 유지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상징이 되고 있고, 관광 사업을 위해 기여되고 개척된다. 둘째, 16세기부터 침략을 시작한 식민지 개척자들 특히 스페인의 영향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이베로 아메리카'라고도 불릴만큼 스페인 문화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아왔다. 이베리아 문화 우세지역은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한 후에도 다수의 유럽이민을 받아들여 발전해온 국가들로, 인디오 문화와의 접촉이 적어 현재도 남유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sup>4)</sup> 그들은 이제 서구 스타일의 의복은 입고 있으며, 유럽인과 동화된 혼혈인 메스티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의 전통 의상은 50여개가 넘는 인디오 부족들 특유의 전통 의상이 존재하나 형태적인 면에서 크게 위펄, 케스케미틀등 판초형 상의와 스커트로 구분되며, 이베리아 문화 우세지역은 '스페인풍'을 연상시키는 숄, 레이스, 투우복 등의 요소들과 다양한 축제에서 러플, 프릴 등이 첨가되면서 환상적이고 화려하게 나타나는 복식스타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고찰함에 있어 문화적 영향을 반영하여 전통 복식이 분류되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디오 문화 우세지역과 이베리아 문화 우세지역의 전통 복식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4대 컬렉션과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비교·분석하였다.

## 2. 인디오 문화 우세지역의 복식

### 1) 전통 복식

라틴 아메리카는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이 발생한 곳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원주민인 인디오 문화 우세 지역인 멕시코, 과테말라, 페루, 볼리비아 등 인디오 문화에서 나타나는 전통 복식은 50여개가 넘는 인디오 부족들 특유의 전통 복식이 존재하나 형태적인 면에서 크게 판초형 상의와 스커트, 블라우스로 구분된다.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 문화 우세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복식은 멕시코 인디오들이 착용하는 케스케미틀(quechquemilt)로 케스케미틀은 몸의 윗부분을 덮는 삼각 판초 형태이다. 케스케미틀은 술에 영감을 주었고, 다양한 자수와 프린지로 장식된다.<sup>5)</sup> 또한 위필(huipil)은 튜너 드레스 혹은 슈미즈 블라우스 형태의 긴 판초로, 멕시코, 과테말라 등에서 보여진다. 위필의 오래된 스타일은 매우 넓은 형태로 나타나며, 네폭의 천이 이용되고 어깨선에서 접혀져 중앙에 머리 구멍이 있다. 스커트는 엔레도(enredo), 팔타(falda)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소재는 수직 직물이 사용되며, 착용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사롱스타일로 무릎에 닿을 정도로 짧게 정리하기도 하고 발목에 닿도록 길게도 한다. 무게가 3kg이나 될만큼 많은 분량의 옷감을 사용하여, 뒤는 세겹이 되도록 접고 또 착용자의 왼쪽 엉덩이 위로 깊은 주름이 여러개 놓이도록 한다. 튜블러(tubular) 형태의 것도 있고 끝자락을 봉합하지 않은 것 즉, 길다란 한 장의 천 그대로인 것도 있다. 엔레도를 착용하는 데는 요대(waist sash)가 필수적이다. 요대가 엔레도의 많은 분량의 주름을 고정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대의 나비는 2.5cm 가량의 좁은 것에서부터 45cm 가량의 넓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길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소한 허리를 두 번은 충분히 감을 수 있는 길이여야 한다. 긴 것은 350cm에 달하여 허리에 착용되었을 때는 마치 타이어의 형태와 같다. 대부분의 인디오 요대는 기능적 역할뿐만 아니라 장식효과도 낸다. 즉, 의복의 색상은 대개 흰색이거나 수수한 반

면, 요대의 색상은 매우 밝아서 생동감있는 조화를 이루게 되다. enagua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스커트로 다른 여러 인디오 명칭으로도 불리며 개더 스커트의 형태로서 waist band가 달려 있어 착용할 때마다 주름을 정리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없고, 상대적으로 엔레도보다 적은 분량의 옷감으로 만들기 때문에 가벼워서 최근 젊은 여성들이 즐겨 입는다. 그러나 연장자들은 엔레도를 더 선호한다. 카미사(camisa)는 보통 흰색 면소재에 목선 부위나 소매 부분, 가슴 부위에 자수 장식, 다아트나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절개선 등이 없는 블라우스로 주름을 넣어 품이 여유있고 직선 재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모든 인디언들은, 물론 다양한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주로 전통 복식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 및 상당한 동화가 이루어진 메스티조들은 이제 서구적인 의상을 주로 착용하며, 전통 복식은 축제와 특별한 행사 때에만 입는다.<sup>6)</sup> <사진 1><sup>7)</sup> <사진 2><sup>8)</sup>

### 2) 전통 직물 디자인

전통 직물 디자인은 고대의 아즈텍(Aztec)족과 마야(Maya)인들의 신앙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으며, 새, 동물, 꽃과 기하학적인 인디언 무늬 등이고, 각 지방에 따라 고유의 전통적인 디자인이 있다. 옷의 문양은 착용자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번개를 의미하는 지그 재그(zigzag)선 무늬는 비와 관계되고, 우기에 자라는 흰색의 새새 꽃은 옥수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풍요로운 옥수수 수확을 기원하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독수리 문양도 매우 선호되는 문양중의 하나이다. 독수리는 어린 옥수수를 지켜준다고 믿었으며, 항상 측면의 모습으로 표현되며 머리가 하나 달린 것과 두 개 달린 것이 있다. 의례용 위필에는 특히 많은 문양이 수 놓아져 있는데, 전통적으로 다이아몬드형이 18줄 들어있다. 9줄은 뒤에, 9줄은 앞에 배치된다. 또 어떤 것에는 26줄이 들어있는데 13줄씩 두 부분으로 나뉘어 배치된다. 이 숫자는 마야 우주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13수준을 지닌 하늘과 9수준을 지닌 지하세계를 암시한다. 다이아몬드형은 그들이 입방



〈사진 1〉  
케스케미틀



〈사진 2〉 위필



〈사진 3〉 고대문양과 텍스타일



〈사진 4〉 깃털장식

체로 생각했던 지구를 표현한 것이다. 네 귀퉁이는 하늘과 옥수수밭의 네귀퉁이와 일치하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위필에 놓이는 문양의 내용은 콩, 옥수수, 꽃 등을 의미하는 식물적 모티프와 일련의 동물 모티프로 구성된다. 박쥐, 벌, 거미, 원숭이, 그 외 많은 동물들을 상징하는 문양들은 매우 도식화되어 있다.<sup>9)</sup> 〈사진 3〉<sup>10)</sup>

인디오 문화에서 색상은 특정한 신을 상징했기 때문에 의복 장식이나 제물을 만들때 색 선택을 매우 신중하게 했다. 멕시코 인디오들에게 청색과 녹색은 물을 상징하고, 옥수수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 색깔이 신성시되었다. 노랑, 빨강, 검정, 흰색은 옥수수색인 동시에 각각 남쪽, 동쪽, 서쪽, 북쪽을 의미했으며, 녹색은 또한 식물과 부흥 및 재생을 뜻했다. Lunholtz에 의하면, 비를 포함한 모든 것이 색상의 관점에서 이해된다고 한다.<sup>11)</sup>

### 3) 전통 장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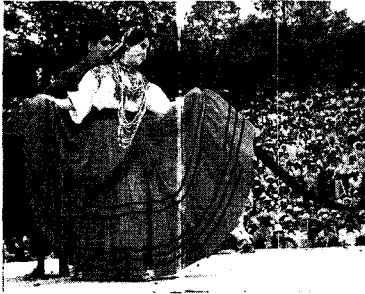
차양이 넓은 모자 솜브레로(Sombrero), 'Aretes Chazuira'라 불리는 귀장식, 머리를 장식하는 장식끈과 장식술, 허리에 매는 새쉬, 이 새쉬에는 흔히 파충류의 무늬가 놓여져 있어서 뱀을 상징하는데, 이는 비와 비가 가져오는 혜택 즉, 좋은 수확, 건강 그리고 장수를 비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깃털이 매우 귀하게 여겨졌다. 깃털 장식에는 세 가지 주요

스타일이 있는데, 첫번째는 비스듬한 모양의 단순한 머리 장식으로, 머리띠에 꿰매어 이마에 고정한다. 두번째는 커다란 '후광' 머리장식인데, 여기에는 마코 앵무새, 해오라기, 사향오리 등과 같은 진귀한 깃털들이 사용되며, 특별한 의식에 젊은 남자들이 쓴다. 세 번째 스타일은 왕관 형태로서, 원형 바탕에서부터 수직으로 깃털을 꽂는다. 이외에도 깃털로 만든 벨트, 팔/발목 밴드 등이 있다. 새는 지구위를 날아다니는 동안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비로운 힘을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고 새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신과 연계되었다고 믿었다. 독수리는 불의 조상신에 속하고, 칠면조는 태양신에 속하며, 이들의 깃털로 모자를 장식하는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긴다. 또한 다람쥐를 태양신의 반려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꼬리가 독수리나 칠면조 깃털과 같이 값진 것으로 여겨졌다.<sup>12)</sup> 〈사진 4〉<sup>13)</sup>

## 2. 이베리아 문화 우세지역의 복식

### 1) 전통 복식

이베리아 문화, '스페인 풍'이라는 말은 낭만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케스터네츠, 부채, 술, 플라멩고 풍 드레스, 레이스, 투우사 복식 등의 요소들로 나타나며, 스페인 정복 이후 여성복의 가장 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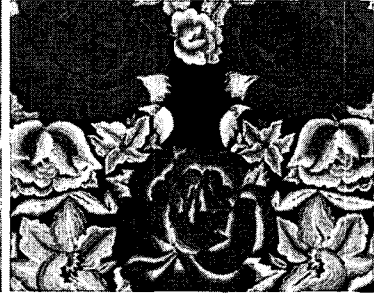
〈사진 5〉 과테말라



〈사진 6〉  
베네수엘라  
여성의상



〈사진 7〉 파나마의  
폴레라



〈사진 8〉 스페인풍 꽃

변화는 블라우스와 풍성한 스커트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스커트는 보통 풍성하고 다양한 길이와 색상의 것을 입는데 안에 몇 개의 페티코트를 입는다.<sup>14)</sup> 중남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의상 가운데 하나인 파나마의 폴레라(pollera)는 주로 면으로 만들어졌으며, 매우 풍성하고 긴 스커트와 짧은 소매에 프릴이 드러워진 보트 넥라인의 블라우스로 이루어져 있다. 폴레라는 스페인으로부터 전래된 것으로 헐렁한 스커트와 블라우스는 식민 통치 시절 노예나 하인들이 입었다고 한다. 다양한 축제와 종교 행사 등에서는 소매에 프릴이 달린 상의 및 많은 프릴과 플라운스로 처리된 스커트 등 환상적이고 화려한 의상들을 많이 입는다. 블라우스는 대체로 상체에 잘맞게 재단되어 그위에 요크(yoke), 프릴(frill)과 자수 등이 첨가되었다. 레보조(rebozo)는 직사각형의 솔로 어깨에 두르는 장식의 용도 외에도 아기를 업거나 짐을 나를때, 교회의 의식용 쓰개로 또한 추운 날씨로부터의 방호 등 다양한 용도로 발달하였다.<sup>15)</sup> 〈사진 5〉<sup>16)</sup> 〈사진 6〉<sup>17)</sup>

## 2) 전통 직물 디자인

스페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물방울 무늬나 붉은색을 중심으로 원색적인 화려한 꽃무늬가 많이 사용되며, 다양한 문양의 화려한 자수가 놓여진 의상을 많이 볼 수 있다. 흰색이나 밝은 색채와 파스텔

계를 선호하며, 주로 면소재를 사용한다. 〈사진 7〉<sup>18)</sup> 〈사진 8〉<sup>19)</sup>

## 3) 전통 장신구

스페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부채, 프릴, 플라운스의 드레스와 어울리는 꽃장식 등이 대표적이다.

# Ⅲ. 2000년 이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

## 1.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

### 1) 디자이너 선정 및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복식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고찰하기 위해 2000 S/S에서 2005 F/W 4대 컬렉션(파리, 밀란, 뉴욕, 런던)에서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활용한 디자이너를 조사하였으며, 결과는 〈표 1〉과 같다.

2000 S/S에서 2005 F/W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 110점이었으며, 형태별 활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활용한 4대 컬렉션 디자이너

	2000 S/S	2000 F/W	2001 S/S	2001 F/W	2002 S/S	2002 F/W
파리	-	Dries Van Noten, Christian Dior	-	-	-	-
밀란	Moschino	Antonio Marras	D&G	-	-	D&G
런던	-	Matthew Williamson	-	-	-	-
뉴욕	Marc Jacobs	Jill Stuart	-	Michael Kors	-	-
	2003 S/S	2003 F/W	2004 S/S	2004 F/W	2005 S/S	2005 F/W
파리	Ungaro	Guy Laroche	Andrew GN	Torrente	-	Alexander McQueen
밀란	Gattioni	-	-	-	-	-
런던	-	-	-	-	-	-
뉴욕	-	-	-	Chloe, Ralph Lauren	-	-

\* 표의 '-'는 본 조사에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시즌을 의미함.

〈표 2〉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2000 S/S~2005 F/W)

구분	라틴 아메리카 전통복식의 형태 활용		서구 복식에 라틴 전통 이미지 가미	
	인디오 문화	이베리아 문화	인디오 문화	이베리아 문화
총 110	24	14	59	11
(%)	22.2	13.0	54.6	10.2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 경향은 전통의 형태를 활용한 변화나 전통 복식의 원형을 그대로 활용하였으나 소재의 변화 등으로 현대화를 표현한 경우를 '전통의 현대화'로, 전통의 문양이나 장신구를 활용하여 서구 복식에 상징적으로 반영된 경우를 '서구복식에 전통 요소 가미'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은 라틴 아메리카 전통 복식의 현대화 경향과 서구 복식에 전통적 이미지를 부수적으로 가미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인디오 문화와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나누어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라틴 아메리카 전통 복식의 형태를 활용하는 경우가 43.2%, 서구 복식에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직물 디자인, 장신구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64.8%로 나타났다. 또한 인디오 문화 요소를 활용하는 경우가 76.8%로 나타났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복식의 아이템 활용 사례는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의 판초형 상의를 활용한 복식이 뚜렷한 특징으로 부각되며,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의 기하학적 문양을 활용하고 전통 복식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한 경우와 솔 등으로 형태를 변형하거나 길이를 더욱 길게 하여 응용한 경우, 서구적인 문양을 활용하고 니트, 레이스, 쉬폰 등 소재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모던하게 표현한 경우 등이 나타났다. 또한 인디오들이 입던 블라우스 카미사를 페전트 품으로 응용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과 라틴 아메리카 축제 의상 등에서 나타나는 러플을 활용한 드레스 아이템 등으로 라틴 아메리카 풍 복식을 표현하는 경우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를 연상시키는 삼바, 탱고 등 스페인 문화와 혼합된 정열적이고 화려한 분위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의 고대 문명과 인디오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원시적이고 소박한 무드로 표현되는 경우가 더욱 비

〈표 3〉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직물디자인 활용(2000 S/S~2005 F/W)

문양	자연문양 (25)		동물문양	기하학 문양	기타
	인디오	이베리아			
총 51	11	14	2	24	0
(%)	21.6	27.5	3.9	47.1	0

〈표 4〉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장신구 활용(2000 S/S~2005 F/W)

구분	악세서리	허리장식	머리장식	기타
총 31	18	1	10	2
(%)	58.1	3.2	32.3	6.5

중있게 나타났다. 〈사진 9-1〉 〈사진 9-2〉

## 2)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

2000 S/S에서 2005 F/W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직물디자인을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 51점이었으며, 형태별 활용 비율은 〈표 3〉과 같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문양의 유형은 자연문양, 동물문양, 기하학적 문양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 중 자연문양은 인디오 문화와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꽃문양을 중심으로한 자연 문양과 기하학적 문양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으나, 자연문양의 경우 인디오의 전통 직물 디자인을 활용한 꽃문양이 21.6%이고 기하학 문양(47.1%)의 경우 대부분 인디오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문양으로 문양의 경우에도 인디오 문화의 영향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 활용 사례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은 인디오의 전통 직물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화려한 컬러로 표현한 경우와 고대 문명의 벽화나 조각품, 토기의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고풍스러운 기하학적 문양이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 활용의 경우 다소 원시적이고 수공예적인 느낌의 인디오의 전통 의상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문양의 활용이 다수이나

스페인풍의 화려한 꽃문양을 활용하여 이국적인 정취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풍 복식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직물 디자인의 활용에 있어서 원시적인 느낌과 정열적인 느낌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사진 9-2〉 〈사진 9-3〉

## 3)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장신구

2000 S/S에서 2005 F/W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장신구를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 31점이었으며, 활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장신구의 활용 사례는 다수는 아니었으나 4대 컬렉션에서는 아즈텍, 잉카 문명의 고대 유물을 연상케 하는 목걸이나 팔찌 등 악세서리와 인디오 복식에서 나타나는 기하학적인 문양을 머플러나 벨트 등에 활용한 사례 등이 나타났다. 또한 비중있게 나타나는 장신구는 멕시코의 슌브레로를 변형한 모자로 라틴 아메리카 풍 복식을 표현함에 있어 라틴 아메리카의 이미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활용되며, 깃털을 활용한 장신구의 사례도 나타났다. 〈사진 9-4〉 〈사진 9-5〉





<9-1> Chloe  
04 F/W

<9-2> Alexander  
McQueen 05 F/W

<9-3> D&G  
02 F/W

<9-4> Ralph Lauren  
04 F/W

<9-5> D&G  
02 F/W

<사진 9> 4대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

## 2.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

### 1) 디자이너 선정 및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복식

라틴 아메리카의 디자이너 선정은 firstview.com의 디자이너 리스트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총 5개국 11명의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가 검색되었고 결과는 <표 5>와 같다. 각각의 디자이너 컬렉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은 서구화된 복식에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요소를 부수적으로 가미하는 경우가 다수로, 서구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 중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이 나타나는 디자이너는 <표 6>과 같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의 경우 국적을 확인 할 수 있으나,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복식은 국가별 특수성으로 나누어지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영향을 미친 인디오 문화와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인디오 문화와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나누어 살펴보았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인디오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문양이나 복식을 패션디자인에 접목시킨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나, 오랜 식민지시대 이후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남아있는 이베리아 문화요소를 활용한 복식 스타일 역시 비중있게 나타났다.

2000 S/S에서 2005 F/W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활용한 사례

<표 5> 라틴 아메리카 지역 디자이너(2000 S/S~2005 F/W)

브라질 (6명)	볼리비아 (1명)	Mexico (1명)	Puerto Rico (1명)	아르헨티나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rlos Miele (6)</li> <li>• Fause Hatén (11)</li> <li>• Ellus (11)</li> <li>• Ellus2nd Floor (1)</li> <li>• Andre Lima (8)</li> <li>• Cia Maritima (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ita Dongre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vid Rodriguez (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uglielmo Capone (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spard Yurkievitch (6)</li> <li>• Tawfik Mounayer (4)</li> </ul>

\* ( )이 숫자는 firstview.com에서 검색 가능한 해당 디자이너의 2000년 이후 컬렉션 횟수를 표시함

〈표 6〉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활용한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디자이너	00 SS	00 FW	01 SS	01 FW	02 SS	02 FW	03 SS	03 FW	04 SS	04 FW	05 SS	05 FW
브라질 (6명중 5명)												
Andre Lima							✓	✓	✓	✓	✓	✓
Carlos Miele							✓	✓		✓	✓	✓
Ellus							✓			✓		✓
Ellus 2nd Floor											✓	
Fause Haten							✓	✓	✓	✓		✓
멕시코 (1명)												
David Rodriguez								✓	✓	✓	✓	✓
볼리비아 (1명)												
Anita Dongre							✓					
아르헨티나 (2명중 1명)												
Tawfik Mounayer						✓						

□ : 컬렉션 출품 시즌

✓ : 본 조사에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이 나타난 시즌

〈표 7〉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2000 S/S~2005 F/W)

구분	전통의 현대화		서구 복식에 전통 이미지 가미	
	인디오 문화	이베리아 문화	인디오 문화	이베리아 문화
총 157	26	11	89	21
(%)	16.6	7.0	60.5	14.3

는 총 157점이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은 전통 복식의 현대화 경향에서 인디오 문화의 영향이 16.6%,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이 7.9%로 인디오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 다수였으나, 이러한 전통 복식의 형태를 계승하고 현대화하는 경향보다는 서구 복식에 전통적 이미지를 가미하는 경우가 76.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미국의 인접국인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 특수성과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을 고수하기 보다는 서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복식을 통해서도 나타난 결과이나 전통 이미지의 활용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인디오 문화요소를 활용한 경우가 77.1%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인디오 문화에서 나타나는 소박하

고 수공예적인 복식의 영향과 이베리아 풍의 정열적이고 낭만적인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요소 중 대부분의 경우는 서구 복식에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직물디자인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복식의 아이템 활용사례는 전체 디자인 중 총 37점으로 다수는 아니었으나, 아이템 활용면에서는 특히 인디오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판초, 카미사, 엔레도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폴레라 등 다양한 라틴 아메리카 전통 복식의 아이템 활용이 나타나며, 이는 주로 판초를 활용하여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표현하는 4대 컬렉션과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다. 〈사진 10-1〉 〈사진 10-2〉

〈표 8〉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직물디자인 활용(2000 S/S~2005 F/W)

문양	자연문양		동물문양	기하학 문양	기타
	인디오 문화	이베리아 문화			
총 117	35	27	1	52	2
(%)	29.9	23.1	0.9	44.4	1.7

〈표 9〉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장신구 활용(2000 S/S~2005 F/W)

구분	악세서리	허리장식	머리장식	기타
총 67	27	22	13	5
(%)	40.3	32.8	19.4	7.5

## 2)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직물디자인

2000 S/S에서 2005 F/W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은 자연문양, 동물 문양, 기하학 문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라틴 아메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을 활용한 전체 디자인 수는 총117점이었으며, 형태별 활용비율은 〈표 8〉과 같다

가장 많이 활용한 문양은 인디오의 전통 직물 디자인에서 나타난 기하학적인 문양의 활용(44.4%)이며,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전통 직물 디자인의 사례 역시 인디오 문화와 이베리아 문화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문양은 인디오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원색적인 기하학적 문양, 꽃문양이며 멕시코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흰색의 옥수수 꽃문양의 활용도 다수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의 경우 볼리비아와 멕시코 등 인디오 문화 우세지역 디자이너의 컬렉션은 다소 소박한 느낌으로, 브라질 디자이너의 컬렉션은 카리브해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화려한 꽃문양과 정열적인 컬러를 활용한 컬렉션의 전개로 나타났다.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장신구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는 깃털을 활용한 디자인들과 깃털 단독 문양만이 아닌 깃털과 꽃문양, 깃털과 기하학적 문양을 조합하는 등 깃털

〈10-1〉 Andre Lima  
03 S/S〈10-2〉 Andre Lima  
04 S/S〈10-3〉 Andre Lima  
02 S/S〈10-4〉 AndreLima 03  
S/S〈10-5〉 CarloMiele 03  
S/S

〈사진 10〉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

문양을 현대적인 느낌으로 활용한 다수의 사례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사진 10-2> <사진 10-3>

### 3)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장신구

장신구는 목걸이·귀걸이 등의 악세서리와 허리 장식, 머리장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00 S/S에서 2005 F/W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장신구의 활용사례는 총67점이었으며, 활용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장신구의 활용은 악세서리, 허리장식, 머리장식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전통 장신구는 인디오의 전통 장신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악세서리류와 깃털 장식, 새쉬, 고대 문화의 영감을 반영한 악세서리류, 멕시코의 슴브레로를 변형한 모자 등 다양한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인디오 문화의 요소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며, 다수는 아니나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을 반영한 꽃장식 등도 나타났다. 장신구의 경우 전통의 변형이나 현대화보다는 수공예적인 느낌을 가미하여 소박한 전통의 느낌을 그대로 재현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10-4> <사진 10-5>

## IV. 결론

2000년 이후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0 S/S에서 2005 F/W 4대 컬렉션과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 사례를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10>과 같다.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활용 사례로 4대 컬렉션 110점과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 157점의 사례를 형태, 문양, 장신구의 영역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으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를 진행한 결과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복식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인 인디오 문화와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으로 크게 분류되며, 인디오 문화 우세지역은 판초형 상의와 스커트, 블라우스, 이베리아 문화 우세지역은 스페인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헐렁한 스커트와 블라우스, 다양한 축제와 행사 등에서 나타나는 환상적이고 화려한 의복 스타일로 분류되었다.

둘째, 전통 복식의 형태적인 활용은 4대 컬렉션(76.8%)과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77.1%)에서 공통적으로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문화인 인디오 문화의 전통 요소를 활용한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차이점은 4대 컬렉션에서는 인디오의 전통 복식인 케스케미틀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인디오 문화의 영향을 반영한 판초형 상의, 카미사, 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을 반영한 폴레라 등 라틴 아메리카 전통 복식의 다양한 형태를 패션디자인에 활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 직물 디자인의 경우 4대 컬렉션(68.7%)과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5.6%)에서 공통적으로 인디오의 전통 직물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문양을 높은 비중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부각되는 차이점은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는 꽃문양, 깃털문양, 기하학적 문양 등 다양한 전통문양을 현대패션 디자인에 활용함에 있어 인디오 문화의 소박하고 원시적인 느낌과 이베리아 문화의 화려한 느낌을 계승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는 깃털을 프린트한 디자인들과 깃털 단독 문양만이 아닌 깃털과 꽃문양, 깃털과 기하학적 문양을 조합하여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으로 표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대 컬렉션에서는 원시적이고 수공예적인 느낌을 주는 인디오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화려한 컬러로 변형하여 표현한 경우와 여기에 스페인풍의 화려한 꽃문양을 사용하여 원시적인 느낌과 정열적인 느낌을 혼용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넷째, 장신구의 경우 역시 인디오 문화의 영향이 두드러지며, 4대 컬렉션과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공통적으로 인디오 문화의 소박한 전통

〈표 10〉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2000 S/S~2005 F/W)

구분		4대 컬렉션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	
형태	인 디 오 문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디오의 전통복식인 케스케미틀의 형태 활용이 대부분으로 나타남</li> <li>술 등으로 형태 변형, 다양한 길이의 변형, 니트, 레이스, 쉬폰 등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고 서구적인 문양을 목시킨 케스케미틀의 변형 사례가 다수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사례는 아니나 하나의 아이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케스케미틀, 위필, 카미사, 엔레도 등 인디오 전통 복식의 다양한 활용이 나타남</li> </ul> 
	이 베 리 아 문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수의 사례는 아니나 러플을 활용한 드레스등으로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플레라, 러플을 활용한 드레스 등</li> </ul> 
문양	인 디 오 문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디오 문화의 영향이 68.7%로 인디오 문화의 영향이 다수 나타남</li> <li>인디오 문화의 전통 직물 디자인을 활용하였으나 원시적이고 소박한 느낌보다는 화려하게 표현한 경우가 다수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디오 문화의 영향이 75%를 차지하며 인디오의 전통 직물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원색적인 기하학적 문양, 꽃문양 등 인디오 전통의 소박한 느낌을 계승한 인디오 전통 직물 디자인의 활용이 다수로 나타남.</li> </ul> 
	이 베 리 아 문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정열적이고 화려한 꽃문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베리아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화려한 색채의 꽃문양</li> </ul> 
장신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야, 잉카 등 고대 유물을 연상시키는 장신구, 인디오 문화에서 나타나는 수공예적인 장신구 등의 사례로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디오의 소박하고 수공예적인 전통 장신구를 현대복식의 악세서리로 활용한 경우가 다수 나타남</li> <li>특히 라틴 아메리카 전통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나타내는 깃털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나타남</li> </ul>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복식에 전통 이미지 가미(64.8%)</li> <li>인디오 문화의 영향이 다수이며, 형태적인 면에서는 판조형 상의인 케스케미틀을 서구적인 해석에 의해 변형하여 활용한 경우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구 복식에 전통 이미지 가미(76.4%)</li> <li>서구 복식에 전통 이미지를 활용한 비중이 4대 컬렉션보다 높게 나타남. 이는 서구에 편입하고자 하는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복식을 통해서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나 라틴 아메리카의 디자이너 컬렉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인디오 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현대패션디자인에 활용</li> </ul>	

적이고 수공예적인 악세서리의 느낌을 재현하여 현대패션의 악세서리로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부각되는 차이점은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복식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다양한 깃털 장식을 비중있게 활용하고 있으며, 4대 컬렉션에서는 마야, 잉카 등

고대문명의 유물을 연상케 하는 악세서리류가 비중있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현대패션의 디자인 영감이 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문화와 복식을 연구함에 있어 세계적인 트렌드로서 또한 라틴 아메리카의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라틴 아메리카의 패션디자인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문화적 진원지로서 문화의 발산자로서 뿐 아니라 서구적인 해석과 다른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나는 복식의 경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들을 주체로 시대의 미의식을 반영한 새로운 정체성 창조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 미국의 신식민지로 분류될 만큼 서구에 편입되고 있는 지역으로,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서구 복식에 라틴 아메리카 전통 요소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76.4%로 4대 컬렉션의 64.8%보다 오히려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는 오랜 식민지의 잔재로 남아있는 이베리아 문화의 요소보다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문화인 인디오 문화의 전통을 활용한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디오의 전통복식인 판초, 카미사 등과 전통 직물 디자인, 장신구 등에서 다양한 라틴 아메리카 고유의 문화 요소를 현대패션에 활용하고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 인디오의 경우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의 고유한 문화의 가치를 현대패션 디자인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계화 시대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 컬렉션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세계적 연계성 속에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전통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이 융합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현 시대에 맞는 국가·지역 차원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창조하고 미국의 지식인에 의해 확산된 라틴 아메리카 문화의 이미지와는 차별화된 진정한 의미의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찾고 이를 세계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이는 서구 문화에 압도당했던 라틴 아메리카 세계화의 맥락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정체성 찾기를 중심으로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라틴 아메리카 문화를 여성복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소수의 디자이너 컬렉션에 대한 분석만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 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사진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에 있어 가시적인 명확한 조형성을 분석할 수 있는 형태, 문양, 장신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색과 소재의 경우 현대적인 유행 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변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러한 이유로 따로 항목을 분류하여 두지 않고, 형태, 문양 등과 함께 살펴보았음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라틴 아메리카의 변화와 라틴 아메리카 디자이너의 컬렉션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전통의 색과 소재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송예림 (2002). 라틴 아메리카니즘의 한계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p. 5.
- 2) Jose Teunissen (2005). *Global fashion/Local tradition*. Terra, pp. 19-20.
- 3) 인디언과 유럽인 부모로부터 혼혈된 사람들
- 4) Feances Kennett (1994). *World dress*. Reed International Books Limited, p. 26.
- 5) *ibid.*, p. 29.
- 6) 황춘섭 (1995). 세계전통복식. 수학사, pp. 242-243.
- 7) 유태순 외 공저 (2006). 세계 민속의상의 이해. 신정, p. 310.
- 8) *ibid.*, p. 310.
- 9) *ibid.*, pp. 238-239.
- 10) <http://www.samaungdesign.net/report/Latin America>
- 11) 유태순 외 공저 (2006). 세계 민속의상의 이해. 신정, p. 399.
- 12) Feances Kennett, *op. cit.*, p. 43
- 13) Feances Kennett, *op. cit.*, p. 141.
- 14) 콰미션 (1992). 스페인과 멕시코 지역의 민속복식 비교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p. 49.
- 15) 유태순, 앞의 책, p. 330.
- 16) 라사라 교육 개발원 편저 (2002). 세계각국의 민속의상. (주) 라사라 패션정보, p. 196.
- 17) 유태순, 앞의 책, p. 330.
- 18) 라사라 교육 개발원 편저, 앞의 책, p. 321.
- 19) <http://www.samaungdesign.net/report/Latin America>